

2024. 3. 14.(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3월 13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02-2133-5005
양성평등일자리팀장	차미영	02-2133-5017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장	장민경	02-810-5234
관련 누리집	<a href="https://www.seoulwomanup.or.kr">https://www.seoulwomanup.or.kr</a> (서울우먼업)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9매

## 서울시, 재취업 꿈꾸는 경력보유여성 110개 기업에서 '우먼업 인턴십'

- 오세훈표  일한...출산·육아로 경력단절 3040여성 경제활동 복귀 지원
- 자격증 등 취업역량 갖춘 경력보유여성 110명에 3개월 간 인턴십 제공, 취업 연계
- 채용수요 있는 기업과 매칭 '채용연계형', 육아휴직 대체인력 매칭 '경력채움형'(신규)
- 기업 프로젝트 수행으로 실전감각 '프로젝트형' 신설...「루트임팩트」와 업무협약
- 14일(목)부터 참여기업 모집...인턴십 참여자 정규직 전환시 300만 원 '고용장려금'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취업 역량을 갖춘 3040 경력보유여성이 인턴십 기회를 통해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2024 서울우먼업 인턴십'을 올해 110개 기업, 110명의 경력보유여성과 함께 추진한다.

<자격증 등 취업역량 갖춘 경력보유여성 110명에 3개월 간 인턴십 제공, 취업 연계>

'서울우먼업 인턴십'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자, 임신과 출산, 육아로 커리어가 중단된 3040 경력보유여성이 다시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서울우먼업프로젝트'의 하나다.

- ‘서울우먼업프로젝트’는 ①구직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우먼업 구직지원금’(30만 원×3개월) ②3개월간 기업에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우먼업 인턴십’(생활임금×3개월) ③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우먼업 고용장려금’(300만 원×1회) ‘3종 세트’로 구성된다.

□ 직업훈련교육 수료, 자격증 취득 등 취업준비를 마친 경력보유여성이 3개월간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재를 찾는 기업과 경력보유여성을 매칭해준다. 뿐만 아니라, 인턴십 종료 후 인턴십 참여자를 정규직(또는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으로 채용하는 기업에는 총 300만 원의 ‘우먼업 고용장려금’을 지급해 지속가능한 고용을 지원한다.

□ 경력보유여성은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쌓으며 오랜 공백으로 낮아진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고,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은 인턴 기간을 통해 예비채용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고 고용장려금도 받을 수 있어 서로 윈윈(win-win)이다.

- 작년 우먼업 인턴십에는 100명을 지원하였고, 59명이 취창업(59%)에 성공, 그중 46명은 인턴십 연계 기업에 취업하여 기업에 고용장려금도 지원하였다. 또한, 참여자 만족도 94.9%, 참여기업 만족도 98.3%로 매우 높았다.

# '23년 우먼업 참여기업 S사는 인터뷰에서 “자체 채용공고 지원자보다 우먼업 인턴십의 매칭 풀이 더 우수했다.”며 ‘기대 이상’이라고 밝혔으며, 빅데이터 컨설팅 스타트업 E사는 지난해 ‘서울 우먼업 인턴십’ 참여 기업으로 워킹맘 인턴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소감을 전하며 “채용사이트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우수인력을 채용하기 힘들었는데, 우먼업 인턴십으로 유능한 지원자들이 매칭되고, 인건비도 지원받아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 D사의 CPO K이사는 “우먼업 프로젝트를 통해 우수한 인재와 함께하는 것은 물론 여성들이 성공적으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일·생활 균형과 양육친화기업문화 확산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14일(목)부터 참여기업 모집··인턴십 참여자 정규직 전환시 300만 원 ‘고용장려금’>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우먼업 인턴십’에 참여할 기업 110개를 14일(목)부터 4월 3일(수)까지 모집한다. 기업 모집을 시작으로 4월부터 인턴십 유형별로 순차적으로 인턴십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 인턴십 참가자가 인턴십 이후에도 해당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으려면 기업이 원하는 인재와 구직자가 원하는 기업을 매칭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인턴십, 유연근로제에 대한 기업의 인식 및 채용수요를 조사·분석한 후, 채용희망 직무와 경력을 보유한 인턴십 참여자를 연계할 계획이다.
  - 대상기업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 소재,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이면 참여 가능하며, 인턴십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고 근로형태는 전일제(주 40시간) 또는 유연근로 모두 가능하다.
  
- 올해 ‘우먼업 인턴십’에서 달라진 점은 취창업률을 높이고 인턴십 후 고용 연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턴십 유형을 다양화했다는 점이다.
  - ▲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과 경력보유여성을 매칭해주는 ‘채용연계형’에 더해서 ▲육아휴직제도 확대 추세에 맞춰 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경력채움형’ ▲기업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실전경험을 쌓은 후 인턴십으로 이어지는 ‘프로젝트형’, 세 가지로 추진한다.
  - 올해 서울시는 성장유망산업 분야 및 3040 여성 취업희망 수요를 반영하여 마케팅 및 IT/SW, 서울형 강소기업,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와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소셜 임팩트 기업을 중심으로 서울 우먼업 인턴십 참여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 2024년 서울 우먼업 인턴십 운영내용 및 추진일정(안)

유형	모집인원	운영내용	추진일정		
			기업모집	참여자모집	인턴십
채용연계형	80명	기업 채용수요와 인턴십 참여자 자격요건 (경력, 자격증, 교육이수 등) 고려하여 맞춤형 채용 연계 지원	3~4월	4~5월	6~8월
경력채움형 (육아휴직 대체인력 매칭)	10명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턴십 지원 *시범 실시	3~7월 (수시)	5~8월 (수시)	6~11월 (수시)
프로젝트형	20명	기업 프로젝트 연계 인턴십 *루트임팩트 민관협력사업 등 연계	5월	6월	(교육,1개월) 7~8월중 (인턴십,2개월) 9~10월

□ 우선, ‘채용연계형’과 ‘경력채움형’은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을 모집해 추진한다. 모집기간은 3월 14일(목)부터 4월 3일(수)까지이며,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 신청 기업은 선정기준에 의한 심사 후 선발되며, 기업이 희망하는 직무 역량 및 조건에 부합하는 참여자를 모집 후 매칭한다. 인턴십 근무는 올해 6~8월(3개월간) 예정이다.

□ 특히, 올해 신규 추진하는 ‘경력채움형 인턴십’은 육아휴직 지원제도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우먼업 인턴십으로 1년 이상 육아휴직 대체가 가능한 인재를 매칭하며, 그 중 3개월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 서울시 강소기업(2024. 3. 현재 307개 기업) 우선 선정

□ 작년에 이어 ‘채용연계형 인턴십’도 운영한다.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과 경력보유여성을 매칭해주는 인턴십 유형으로,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에게 우수 인재 채용의 기회다. 작년 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

문 결과 98.3%가 인턴십 사업이 인력 채용에 도움이 되었으며, 채용 전 사전 검증의 기회가 되었다고 응답한 만큼 만족도가 높다. 신청 시 채용을 희망하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된다.

- 서울시는 ‘서울우먼업 인턴십’에 참여하는 경력보유여성과 기업에 인턴십 매칭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인턴십 참여자에게는 출근 전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상담을 통해 경력 복귀 전 필요한 직무역량과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맞춤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인턴십 현장을 방문하여 노무, 인사 등을 모니터링하고, 1:1 컨설팅을 제공하는 ‘취업이음지원관’ 제도도 운영한다.
  - 아울러, 인턴십 참여기업 중 일·생활균형 제도 개선 등을 희망하는 기업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지원센터’로부터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기업 프로젝트 수행으로 실전감각 ‘프로젝트형’ 신설...「루트임팩트」와 업무협약>

-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젝트형 인턴십’은 기업의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실전감각을 익히고 인턴십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 그 시작으로 올해는 비영리 사단법인 「루트임팩트」와 ‘프로젝트형 인턴십’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우먼업프로젝트 대행기관인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루트임팩트」와 13일 ‘서울시 경력보유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경력 지속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루트임팩트」는 ‘일터의 다양성과 포용 문화 형성’을 위해 2018년부터 경력단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임팩트 커리어 W’, ‘리부트캠프’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직자가 조기에 안

정적으로 조직에 적응하고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온보딩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더불어 경력보유여성의 채용을 적극 고려하는 다양한 임팩트 조직을 선별하여 구직자와 연결할 예정이다.

\* 온보딩 프로그램 : 신규 입사자가 조직에 수월히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문화 등을 안내 및 교육

○ 서울시에서는 ‘서울우먼업 인턴십’ 사업으로 임팩트 기업으로 취업을 희망하고 직무 역량을 보유한 3040 여성을 모집하여 해당 기업 매칭을 제공하게 되며, ‘프로젝트형 인턴십’ 참여자 모집은 6월 예정이다.

□ ‘우먼업 인턴십’과 ‘서울우먼업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서울우먼업’(<https://www.seoulwomanup.or.kr>) 누리집이나 카카오톡(‘서울우먼업 프로젝트’), 대표전화(☎1660-304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경력단절문제 해결 없이는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서울우먼업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는 인턴십 유형을 다양화해서 취업연계 효과를 더욱 높여나가고자 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진 요즘, 양육친화적인 문화 확산에 기여하면서 우수한 경력보유여성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 붙임 : 1. 「서울우먼업 인턴십 기업모집」 포스터  
2. 「서울우먼업 인턴십」 사업개요  
3. 업무협약식 사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루트임팩트)



# 경력을 살리세요 능력을 펼치세요

서울시가 3040 여성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우먼업 인턴십  
참여기업 모집**  
채용연계형, 경력채움형  
(육아휴직대체형)

**모집기간**

2024.3.14.<sup>(목)</sup>부터  
~ 4.3.<sup>(수)</sup>까지 지원접수

**신청 대상 및 방법**

인턴십 지원 >  
인턴십 참여 신청 (기업 클릭)  
※우먼업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



- 신청자격** :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 예외 : 1.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① 벤처기업 ② 가족친화인증기업 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은 입증자료(벤처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 필요
  - 2. 경력채움형 인턴십(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경우 중견기업 참여 가능
- 접수기간** : '24. 3. 14.(목) 09:00 ~ 4. 3.(수)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서울우먼업 홈페이지, <https://www.seoulwomanup.or.kr>)
  - ※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모집규모** : 총 110개사 이상
- 모집유형** : ①채용연계형 인턴십 ②경력채움형 인턴십(육아휴직대체)
  - ※ 경력채움형 인턴십은 수시 모집, 프로젝트형 인턴십은 별도 추진
- 운영기간** : 인턴십 체결일로부터 3개월
- 심사기준**
  - 내·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사업에 대한 이해, 인턴근무 수행 적합여부 등 평가(서류심사)
- 지원내용**
  - 인턴 매칭 : 기업 채용 조건에 부합하는 경력보유여성 인턴 매칭
  - 인턴십 인건비 지원
    - 서울시 생활임금(시급 11,436원)을 기준으로 최대 3개월 지원하며, 참여 유형·근무 시간에 따라 지원 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월 최대 2,390,124원(주 40시간))
    - ※ 참여기업과 인턴의 4대 사회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기업부담금은 자체 부담해야 함
  - 우먼업 고용장려금 지원
    - 우먼업 인턴십 참여 후 정규직 혹은 상용직 전환 고용 후 3개월 만근 확인 시, ‘우먼업 고용장려금’ 지원(총 300만원) (※단, 중견기업의 경우 해당하지 않음)
  - 연계프로그램 제공
    - 기업 일·생활균형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일·생활균형 컨설팅
    - 취업이음지원관 운영[기업 현장 컨설팅 및 참여자 상담 관리(2회)]



